

직거래장터 '바로마켓' 설맞이 할인·연장 운영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지원하고 (사)한국농식품법 인연합회가 운영하는 경마공원 직거래장터인 '바로마켓'이 설 연휴를 앞두고 할인과 연장운영을 실시한다.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꾀감, 한과, 영광굴비 등 백화점 수준의 설 선물세트를 시중가격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물세트는 택배 발송이 가능하며 대량주문 시 택배비 할인 등 추가적인 서비스도 제공된다. 축산품의 경우 한돈 삼겹살과 목살은 100g당 2000원, 한우 등심(1등급)은 100g당 8500원 등 전국 평균가보다 약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 밖에도 내수위축 극복과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한민국 농활갑시다!' 할인행사를 통해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평소 주 2회(화·수) 운영하는 바로마켓 드라이브루는 시민의 원활한 설 명절 쇼핑을 위해 2월 8일에도 추가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구매자는 이용이 불가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02-6300-8376)로 하면 된다.

美 킨랜드 1월 경매 거래규모 503억원 상회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온라인 발매 호조에 힘입어 해외 더러브렛 산업이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미국 킨랜드 경매(사진)에서는 총 963마리의 말들이 새 주인을 찾았다. 거래규모는 4500만 달러(503억원)를 상회한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20년 1월 경매에서 1050마리가 총 4000만 달러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도 회복세가 뚜렷하다. 코로나19에도 온라인 발매에 기반한 '비대면 경매'로 경매 중단이 없다는 점이 시장에 훈풍을 몰고 왔다는 분석이다. 삼손목장(Sam-son Farm)의 '댄스포터코우즈'와 폼파(Pompa dispersal)의 '리갈글로리'가 각각 92만5000달러(10억3000만 원)에 최고가로 판매됐다. 한국마사회도 3월에 올해 첫 경주마 경매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발매 매출에 힘입어 비대면 경매를 진행하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경매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경매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정용운 기자

한국마사회 승마단이 뿔다



한국마사회 승마단은 승마 전문 기술 보급, 유소년 승마 활성화 등의 활동을 펼치며 대중 스포츠로서의 승마 가치를 높이고 있다. 말산업 육성 지원 등 공익적 가치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승마 대중화·말산업 성장, 힘 보탬 것”

멘토링·승용마 조련 등 대중화 앞장
마사회TV 등 온라인 채널 통해 소통
내년 항저우AG 메달 목표 훈련 전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며 유소년, 학생 선수를 적극 육성하고 마문화 보급에 앞장섬과 동시에 말산업 대중화를 위한 청병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승마 스포츠를 통해 국민에게 치유와 할링을 선물하며 말산업 저변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승마단이 신년 포부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2019년 대중 스포츠로서의 승마 가치를 높이고 선진국형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수단 역할이 중요함을 공감하며 승마단을 재창단했다. 단

순히 소수 엘리트 선수 양성에 집중한 것이 아닌, 말산업 육성 지원 등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체질 개선에 주력하며 승마 전문 기술 보급과 유소년 승마 활성화 등의 기능을 재정립했다.

창단 첫해에는 유소년 승마선수단 멘토링을 전라남도 진도에서 진행해 지역별 승마 교육 편차를 없애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썼다. 마문화 공연인 '레클리스 1953'에도 참여해 공연 수익을 기부하는 등의 활동에도 매진했다.

또한 승마단만의 전문성을 활용해 '희망'이라는 승용마를 조련하고 육성 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해당 말이 국산 승용마 경매에서 최고가에 낙찰되는 등 생산 농가들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하나의 가능성 있는 지원 모델을 선보였다. 올해도 우수한 승용마 조련에 힘쓰며

선진 국산 승용마 양성을 위한 든든한 교두보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마사회 승마단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승마주간 기간에도 제49회 한국마사회장배, 제5회 국산 어린말 승마대회 등에 출전하며 좋은 기량을 선보였다. 복합마술 경기에서는 방시례 선수가, 마장마술 5세 경기에서는 전재식 감독이 1위를 차지하며 녹슬지 않은 실력을 증명했다. 올해는 대한승마협회 주관 국내 대회 출전에 집중하고 대표팀 선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을 목표로 연습에 전념하고 있다.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소통도 이어갔다. 유튜브 채널 '마사회TV'와 '야신야덕' 채널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승마단 원데이 레슨을 진행했다. 말과 소통

하고 교감하는 법을 소개하고 기초적인 승마 기술을 재미있는 영상에 담아 누리꾼들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한국마사회 KR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30회 분량의 '전재식 감독의 승마가 좋다' 시리즈를 선보였다.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승마 노하우와 기술 등을 실제 훈련 영상에 녹였다.

전재식 한국마사회 승마단 감독은 “작년 한 해 승마를 사랑하는 팬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해 참으로 아쉬웠다. 하루 빨리 편하고 즐겁게 승마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올해는 침체된 말산업을 회복하고 상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승마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아깝다 닉스고”…美 이클립스 어워드 ‘올해의 수말’ 2위

(4세 이상)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소속 경주마 ‘닉스고’가 미국 경마산업의 연말 시상식 ‘이클립스 어워드 2020’에서 ‘최우수 4세 이상 수말’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에는 실패했다.

이클립스 어워드는 미국판 연도대표마 시상식이라 할 수 있다. 2년간 21전 전승이라는 대기록을 남긴 18세기의 전설적인 명마 ‘이클립스’를 기념하기 위해 1971년부터 전미 더러브렛 경주협회(NTRA) 주관 하에 연도대표마와 최우수 기수 등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1월 28일(한국시각 29일) 발표된 올해 이클립스 어워드에서는 ‘올해의 경주마’를 비

롯해 17개의 상이 수여됐다. ‘올해의 경주마’ 영광은 브리더스컵 클래식과 캔터키더비에서 우승한 ‘어썬틱’이 차지했다. ‘4세 이상 암말’ 부문은 ‘모노모이걸’이 선정됐다. 2018년 ‘최고의 3세 암말’에 선정된 후 두 번째 이클립스 어워드 수상이다.

‘4세 이상 수말’ 부문은 ‘임프로버블’이 가져갔다. ‘닉스고’도 후보에 올라 기대를 모았으나 2위에 그쳐 수상은 하지 못했다. ‘닉스고’의 조교사 브래드 폭스는 ‘최우수 조교사’의 영광을 안았다. 브래드 폭스는 ‘모노모이걸’, ‘에센셜리티’, ‘닉스고’ 등을 훈련시키며 2020년 216회의 우승을 이끌었다.

‘최우수 마주’ 부문 수상자는 두바이 왕가로 유명한 고돌핀이었다. 2020년 한 해 80경주의 우승마를 배출했으며, 이를 통해 570만 달러(64억 원)의 상금을 수확했다. ‘최우수 생산자’ 부문은 148개 경주 우승마를 생산한 ‘윈스타팜’이 가져갔다. 2020년 922만 달러(약 104억 원) 상금을 수확하며 경주마 생산 산업의 건재를 과시했다.

한국경마는 1999년부터 20년 간 이어온 ‘연도대표마’ 시상식을 시행하지 못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 비대면 방식 발매시스템 부재로 정상적 경마 시행이 불가했고, 다수의 대상·특별경주 역시 줄줄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정용운 기자



닉스고

스포츠 종합

대한체육회, 설 기간 ‘청렴 캠페인’



스포츠7330
당부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전한 명절문화 조성 및 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해 25일까지 ‘2021년 체육회는 청렴이다!’ 캠페인(사진)을 펼친다.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2021년을 맞아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성을 강화하고, 청렴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대한 임직원,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를 홍보하고, 부서별로 활동 중인 청렴코치 직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임직원,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에서도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외부청렴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측정 평가 취지 등을 설명하고 공익신고제도, 청탁금지제도 등 청렴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스릭스, ‘Z-STAR’ 시리즈 골프공 출시

‘SeRM’ 적용…스핀량·비거리 향상

던롭스포츠코리아(대표 홍순성)가 전개하는 글로벌 골프 토폴 브랜드 스릭슨이 4일 6세대에 걸친 진화를 통해 스핀 기술을 집약한 ‘NEW 스릭스 Z-STAR’, ‘Z-STAR XV’를 출시했다.

커버에는 스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분자 소재인 ‘SeRM(세름)’을 적용했다. 스핀 스킨 코팅으로 점성을 높여 스핀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부드러운 타구감을 만들 수 있고, 내구성이 향상돼 일관성 있는 플레이를 돕는다. 338핀돌을 적용해 강한 맞바람에도 직진성과 비거리 향상을 제공한다.

NEW 스릭스 Z-STAR(3피스)는 스핀 스킨 코팅과 0.6mm 슈퍼 소프트 우레탄 커버를 통해 아이언과 웨지샷 시 볼의 커버가 그루브에 더 밀착돼 스핀량을 향상시켰다. NEW Z-STAR XV(4피스)에는 스릭스 골프 개발팀과 던롭타이어 연구팀이 함께 개발한 이너코어를 통해 드라이버 비거리



스릭슨이 새롭게 출시한 Z-STAR Series Golf Balls 이미지. 사진제공 | 던롭스포츠코리아

를 최대한 증대시켰다. 두 모델 모두 퓨어 화이트와 투어 옐로,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NEW 스릭스 Z-STAR 시리즈 출시를 기념해 3월 31일까지 2더즌 구매 시 3월에 출시될 스릭스 DIVI DE 볼 시리즈 하프 더즌(3피스 1슬리브, 4피스 1슬리브)을 증정하고, 이벤트 참여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최경주, 박인비의 친필 사인 모자를 준다. NEW 스릭스 Z-STAR 시리즈는 300여 개 전국 스릭스 특약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캘러웨이골프 ‘에이펙스 21 시리즈’ 공개

AI 기술 결합한 첫 단조 아이언

단조 아이언의 대명사인 캘러웨이골프의 에이펙스(APEX)는 단조 아이언과 비거리를 결합한 새로운 아이언의 전형을 창조한 클럽이다.

캘러웨이골프가 4일 에이펙스의 명성을 잇는 신작 ‘에이펙스 21 시리즈’를 공개했다. 에이펙스 21, 에이펙스 DCB 21, 에이펙스 프로 21, 에이펙스 MB 등 아이언 4종과 에이펙스 21, 에이펙스 21 프로 등 하이브리드 2종으로 출시됐다.

에이펙스 21 아이언은 중·상급자에게 적합한 제품. AI 기술로 설계된 최초의 단조 아이언으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수준의 비거리와 정확한 컨트롤을 제공한다. 캘러웨이골프 R&D팀은 AI 기술로 스프링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텅스텐 코어로 관용성을 더욱 높였다. 잔디와 클럽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을 적용해 압도적인 타구감과 탁월한 퍼포먼스를 가능토록 한다. 에이펙스 21에 삽입된 텅스텐 에너



캘러웨이가 새롭게 출시한 에이펙스 21 시리즈 아이언과 하이브리드. 사진제공 | 캘러웨이골프

지 코어는 이전 에이펙스 아이언에 사용된 텅스텐의 5배를 사용해 무게중심을 정밀하게 배치했다.

에이펙스 21 하이브리드는 볼 스피드 기술과 AI 기술을 결합한 뉴 제일브레이크 벨로시티 블레이드를 탑재했다. 수직 강성을 높이도록 설계돼 볼이 헤드 아래 부분에 맞더라도 높은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페이스 컵이 크라운에서 탄성을 높여 일관된 스핀을 제공하고 넓게 배치된 바가 페이스의 비틀림을 최소화해 더 높은 관용성을 확보했다.

김도현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